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9.15.(월) 10:00	배포	2025.9.12.(금)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장(代) 박은혜	(02-3145-7892)
		담당자	팀 장 최윤선	(02-3145-7901)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5.9.15.(월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
 - 외국계 금융회사의 금융현안 관련 다양한 제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

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5.9.15.(월) 10:00 ~ 11:30
 - ☑ 장 소 :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4
 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찬진 원장, 권역별 감독국장 등 8명
(외국계 금융회사)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*
- * 은행 10개사, 생보 3개사, 손보 3개사, 증권 6개사, 자산운용 3개사

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외국계 금융회사의 여러 조언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
 - 외국계 금융회사는 '코리아 프리미엄'의 과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동반자로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부탁하며,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

가 금융소비자 권익 중심의 경영원칙 수립

- 외국계 금융회사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히며
 -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- 또한, 국내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므로
 -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의 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

나 효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사전적 리스크관리 강화

- 미국의 관세정책,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내의 저성장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
 -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
- 외국계 금융회사도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과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
 - 이를 기반으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

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을 위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제언

-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은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고
 - 특히,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- 외국계 금융회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높은 이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균형잡힌 의견을 줄 것을 당부하며
 - 향후 금융감독·검사정책이 영업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해외의 시각 등도 가감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부탁

라 한국 금융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관심

-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혁신 및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
 - 금융당국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힘
- 한편,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
 -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

-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
 -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회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감하였고
 - 앞으로도 한국 금융의 질적·양적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힘
- 또한, 한국 금융중심지의 내실화 방안,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전략적·체계적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였고
 -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모 및 영업형태 등 여러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도 요청함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·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
 - 앞으로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